

신앙과 삶 시리즈 2 - 신앙과 물질관리

< 차례 >

신앙과 삶 시리즈를 발간하며

- **생각을 위한 글 - 같은 월급, 다른 만족**

어느 직장인의 씬씀이 - 하나

어느 직장인의 씬씀이 - 두울

- **물질관리 자기진단을 위한 물음**

돈의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 **신앙과 물질관리**

- **생활 속의 신앙**

십일조

그리스도인 삶의 제 1원리 FLOWING!

물질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 **영화 속의 진리를 찾아서**

돈과 탐욕의 미학 - 영화 '제리맥과이어'와 '히트'를 보고

- **이 사람의 신앙과 삶**

십일조와 맨소래담

천국에의 투자 / 자기에의 투자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그리스도인

- **생각을 위한 시**

돈

♣ 신앙과 삶 시리즈를 발간하며

믿는다는 것과 산다는 것!

이 두 가지는 서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살아가는 문제로 고민하고 갈등합니다.

특히 인생의 젊은 날을 살아가는 그대 청년들에게는

수많은 문제들이 고민거리로 다가옵니다.

이러한 질문들 앞에서 우리는 자주 좌절하기도 하고,

갈등하기도 하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를 끌어안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삶의 문제에 대하여 정확한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대 청년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신나고, 행복하고, 환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삶을 위하여

우리는 12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배우려고 합니다.

고민을 함께 나누고, 말씀을 묵상하고,

서로를 축복하고 권면하는 시간들.

이 좋은 시간들을 통하여 그대의 삶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기대하십시오.

젊은 날을 살아가는 그대를 축복합니다.

- 그대들의 영원한 친구 준석이가 뜨거운 가슴을 품고 쓰다.

생각을 위한 글 - 같은 월급 다른 만족

어느 직장인의 씬씬이 - 하나

구의동에 사는 정○○씨

저는 월급날이 기다려집니다.

그 동안 사고 싶었던 것들도 살 수 있고, 약간의 빚도 갚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소유욕이 늘어가기 시작했고, 그와 반대로 점점 만족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전에는 사고 싶었던 것들 중 한 가지만 살 수 있어도 행복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몇 가지를 더 사게 되어도 제 눈에는 사야 할 것들이 더 많아 보입니다. 이로 인해 절제력이 상실 된 듯 합니다. 카드를 그어서라도 제가 사고 싶은 것은 꼭 사고 마니까요. 때론 뿌듯함도 있답니다. 대문 밖에 서 있는 자동차와 책상 위에 멋지게 놓여 있는 새로 산 컴퓨터 그리고 옷장에 걸려 있는 옷들과 신발장에 진열되어 있는 여러 켈레의 신발들을 보고 있노라면 부자가 된 듯 하거든요. 또한 친구들이나 직장 동료들과 술 한 잔하는 것이 저

에게는 큰 기쁨입니다. 직장에서 쌓였던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인가 제 주머니에 일정 액수의 돈이 없으면 불안감을 느낍니다. 이번 달 월급 받은 지 열흘도 안 되었는데 이미 지출의 한계선을 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월급 날이 애타게 기다려지는군요.
 어떻게 해야 저의 월급으로 한 달 동안 만족감을 느끼며 살 수 있을까요?

생각을 위한 글 - 같은 월급 다른 만족
어느 직장인의 씬씬이 - 두울

상계동에 사는 김○○씨

월급날이 되면 머릿속이 분주해진다.
 먼저 심일조를 떼어 놓고, 이것저것 생활의 규모들을 생각해 본다. 적지만 예금은 꼭 한다.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아주 적은 액수이지만 부모님께 드릴 용돈도 계산해 본다. 아차! 선교 헌금도 있지? 이 헌금을 낼 때면 가슴이 벅차오른다. 나 또한 언제 어느 곳으로 나가서 주님 일을 하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이젠 한 달 용돈을 챙겨본다. 문화비, 교제비, 그리고 필요했던 것들과 사고 싶었던 것들의 목록을 살펴본다.
 이 목록들만 생각하면 나의 월급이 늘 초라해 보인다. 하지만 사고 싶었던 것들을 한꺼번에 다 사게 되면 다음달에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없게 될 것이다. 늘 똑같은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은 그 목록을 늘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해야 작지만 그 만족감을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누릴 수 있을테니까. 이렇게 물질로 누릴 수 있는 부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다음달에도 월급은 나올 것이다.
 다음달엔 또 어떤 물질의 기쁨을 누리게 하실지 기대를 해본다.
 하지만 늘 의문을 갖게 된다.
 과연, 내가 주님께서 주신 물질을 제대로 쓰고 있는 것일까?

돈의 주인입니까? 돈이 주인입니까?

(물질관리 자가진단을 위한 질문 15가지 : YES / NO)

- ① 지갑에는 돈을 항상 넉넉히 넣어 가지고 다닌다.....(Y / N)
- ② 금전출납부는 한 달 이상 써 본 적이 없다.....(Y / N)
- ③ 버스 한 정거장의 거리라도 걷는 것 보다는 차라리 버스나 택시를 탄다.....(Y / N)
- ④ 일정한 액수의 돈이 들어오면 먼저 필요한 것부터 산다.....(Y / N)
- ⑤ 외식을 자주 하는 편이다.....(Y / N)
- ⑥ 심일조나 감사헌금은 비슷한 거라 생각한다.....(Y / N)
- ⑦ 싸게 파는 물건은 많이 사 두는 게 이익이라 생각한다.....(Y / N)
- ⑧ 물건 사는 데 오만 원도 아깝지 않은데 헌금하는 데는 만 원도 아깝다.....(Y / N)

- ⑨ 스트레스가 쌓이거나 우울할 때 주로 쇼핑을 하거나 돈을 쓴다.....(Y / N)
- ⑩ 문화생활을 하는 것이라면 아끼지 않고 돈을 투자한다.....(Y / N)
- ⑪ 한 달 용돈이 일정하지 않다.....(Y / N)
- ⑫ 신용 카드에 갚아야 할 돈이 있다.....(Y / N)
- ⑬ 지금 유행하고 있는 옷이나 물건이 한두 개쯤은 있다.....(Y / N)
- ⑭ 걱정 현금은 내 본 적이 없다.....(Y / N)
- ⑮ 중고 물품은 괜히 꺼려진다.....(Y / N)

YES가 몇 개나 되십니까?

0 - 5개 “나는 주님의 청지기!”

6 -10개 “물질 관리는 생각보다 어렵군요!”

11 -15개 “내 사전에 물질 관리란 없다!”

~ 당신의 믿음의 고백이 이제는 성숙한 모습으로 빛어져야 할 때입니다.

너는 내 것이라

송명희 작사 / 최덕신 작곡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재 것이라

너는 잘 났으나 못 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의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바꾸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신앙과 물질관리

-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

무엇인가를 가질 때에 웃고, 무언가를 잃을 때에 우는 존재! 그가 보통 인간입니다. 이것이 올바른 모습입니까? 성경은 세상이 말하는 물질에 대한 가치관과는 사뭇 다르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질은요,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게 주어진 물질을 정말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물질에 대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은 '그리스도인의 물질관리'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 생각을 위한 나눔

1. 그대가 지난 일주일 동안에 사용한 돈을 용도별로 구분해 보세요.
2. 그대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어느 정도입니까? 밝히기 어려운 것들이 있다면, 마음 속으로라도 계산해 보세요.

▣ 말씀 묵상 및 적용

1. 인생의 시작은 빈손입니다.

나눔시다

- 가지고 싶은 것이 있나요? 무엇인가요? 함께 나누어 보세요.

인간은요, 빈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대가 무엇인가를 많이 가지고 사는 것 같지만 그대는 빈손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인간은 무소유로부터 시작합니다.

욘 1:21

☞ 도움말

적신 : '붉은 몸' 이라는 뜻으로, 아무 것도 가지지 아니하고 태어나는 아기의 몸을 가리킵니다. 즉 인생의 출발은 빈 몸, 무소유라는 것입니다.

딤편 6:7-8

☞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 6:24)

2.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 그대는 관리인입니다.

① 만물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창 1:1

② 인간은요, 주인이 아닙니다. 다스리는 관리인입니다.

창 1:26-28

☞ 경제생활의 거듭남이 없이는 온전히 거듭났다고 할 수 없다. - 요한 웨슬레 -

③ 그대에게 물질을 주시기도 하시고, 거두어 가기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관리권을 주셨다가도 한 순간에 가져가시기도 하시고, 또 어느 정도 양의 물질의 관리권을 맡기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물질이 그대 손을 떠나갔다고 해서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삼상 2:6-7

☞ 특히 죽음에 임박해서 청산의 지혜를 가진 청지기는 참으로 선한 청지기이다. 청산의 지혜를 가진 청지기란, 내 생의 모든 소유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고 모든 유산을 자손들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 - 백구영 -

3. 많은 것은 좋은 것이고, 적은 것은 나쁜 것인가? - 그렇지 않습니다.

나눔시다

◦ 그대는 그대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많은 것이 꼭 좋은 것은 아닙니다.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습니다. 소유가 적더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삼상 17:47

☞ 돈은 신사를 만든다. 하지만 돈에 대한 과욕은 악인을 만든다.

- 아일랜드 속담 -

돈은 수고하여 얻고, 근심하며 지키고, 잃으면 한없는 슬픔이 밀려온다.

- 스코틀랜드 속담 -

②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많은 소유는 함께 사는 것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소유는 삼촌과 조카를 갈라놓았고, 형과 동생을 갈라놓았습니다.

창 13:5-6 (아브라함과 롯)

창 36:7 (야곱과에서)

☞ 그들 자신의 재산을 소유한 부자는 별로 없다. 재산이 그들을 소유하고 있다.

- 잉거솔 -

Few rich men own their own property, the Property owns them.

- Ingersoll -

③ 인간은 소유가 많아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잇기 쉬운 존재입니다.

신 31:20

④ 인생의 행복은 소유가 많은 것에 있지 않습니다.

잠 17:1

☞ 만일 당신이 지옥의 저주를 피하고 싶거든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내어 주라.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위하여 가룟 유다의 희망, 그 이상의 희망을 가질 수 없다. - 요한 웨슬레 -

⑤ 인간은 탐욕을 가지면서부터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소유에 대하여 자족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민 11:4

골 3:5

딤펑전 6:6

☞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소유권은 실질적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향상시킨다.
- 리차드 포스터 -

4. 물질은 잘 사용해야 합니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잘 사용하는 것일까요?

① 선교에 사용해야 합니다. 영혼을 살리기 위하여 물질을 쓰는 것은 거룩한 투자입니다.

고후 12:15

② 사랑을 베푸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눅 6:38

신 10:18-19

☞ 세 가지의 회심이 필요하다. 가슴의 회심, 정신의 회심, 그리고 돈지갑의 회심이다.
- 마틴 루터 -

③ 구제할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신 15:10-11

④ 사람이요, 열심히 구제하여도 풍족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무조건 아끼기만 하여도 빈궁하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 물질이란 선한 것이며 사용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하면서 사용한다면 거룩한 열매를 맺는다. 이웃을 위해 사용되고 하나님을 위해 사용될 때 물질은 본래의 선한 성질을 나타내게 된다. - 이상훈 -

잠 11:24-25

나눔시다

◦ 선교를 위해서나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하여 물질을 드린다면, 그대가 드릴 수 있는 것은 어느 정도입니까?

사람은
자신이 포기할 수 있는 만큼의 물질이
진정한 자신의 재산입니다.

생활 속의 신앙 - 하나

십일조

당신은 십일조를 하는가? 만일 안타깝게도 십일조를 하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많은 영역에서 자신의 믿음을 보이지 못하는 것이다. 물론 십일조를 구약시대의 율법이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도 있겠지만 십일조는 십의 일만이 하나님의 것이 아닌 나머지 십의 구 또한 모두 절대적인 하나님의 소유라는 믿음에서 나오는 실제적인 신앙인 것이다.

헌금은 신앙의 표현이고 헌신의 표현이다.

이렇듯이 기독교는 이상의 종교가 아니다. 실제적이며 실천적이어야 한다. 믿음으로 드러지는 모든 행위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이다.

십일조의 기원은?

최초의 십일조는 아브라함이 멜기세덱 제사장에게 드린 것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창 14:17-21) 물론 아벨이 최초의 십일조를 드렸다고는 하나 성경은 아브라함의 십일조를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브라함이 십일조를 제사장(교회)에게 드린 것은 의무도 약속의 이행도 아닌 '감사'였다. 거대한 부자였던 아브라함은 전쟁에서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출전을 했고 모든 왕들을 쳐부수고 승리한 뒤 탈취한 재물이 아닌 자신의 소유에서 십일조를 드린 것이었다.

“땅의 십분의 일 곧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과실이나 그 십분의 일은 여호와와 그의 여호와께 성물이라 (레 27:30)”

성경에서는 모든 것의 십분의 일이 여호와와 그의 여호와라고 정확하게 말하고 있다.

나를 시험해 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르시라.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말라기 3:10)

여기에서, '나는 시험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은 성경 전체에 있어서 아주 특별한 대목이다. 하나님은 시험받지 아니하시는 분이다. 하지만 여기서는 '십일조를 내면 축복하겠다.'가 아니라 '나를 시험하여...붓지 아니하나 보라'까지 말씀하신다. 십일조는 우리가 하나님께 가기 위한 아주 특별한 축복의 길인 것이다.

한편 9절에서는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 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 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십일조와 헌물이라.” 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책망하신다. 하지만 만물이 모두 여호와와 그의 여호와인데 무엇이 필요하셔서 우리 소득의 십의 일을 달라고 하시는가? 십일조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내려오는 '하늘 문이 닫히는' 하나님의 원인이기 때문이다.

택하신 그곳으로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한곳을 택하실 그곳으로 나의 명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찌니...(신 12:11)”

십일조는 교회에 내야 한다. 당신의 십일조를 가지고 이름 좋은 자선 사업에 쓰거나 여기저기 나눠서 선교단체나 여러 기관에 주는 것은 옳은 방법이 아니다.“

‘온전한 십일조’를 ‘하나님의 창고’ ‘택하신 그곳’에 드려야 한다.

☞ “많은 사람들이 실업으로 고통 받습니다. 한 가족의 삶이 무너집니다. 요즘과 같은 때에 여러분이 십일조를 주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축복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관대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역대상 29:14)

생활 속의 신앙 - 두울

그리스도인 삶의 제 1원리

FLOWING!

'FLOWING' 이라는 단어는 '흘러 넘친다'는 뜻이다. 무언가가 가득 차고 그것이 다른 곳으로 넘쳐 흐른다는 것이다. 크리스천으로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흘러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 나눠 줘야 한다. 특별히 여기서는 FLOWING의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한다.

내 것인가, 하나님의 것인가

‘만물은 본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신명기 10:14)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레위기 25:23)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와 같이니라’ (학개 2:8)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 (고린도전서 10:26)

이 세상 모든 것의 소유주는 오직 하나님(Absolute Owner)이시다. 하나님은 맨 처음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에도 복은 주셨지만 이 땅에 지으신 모든 것에 대해서는 관리자 - ‘청지기’의 역할을 맡겨 주셨을 따름이다. (이를 청지기 정신-stewardship 이라고 한다.)

우리가 어떤 것을 소유하고 있다가 그것을 잃는다면 그것은 커다란 슬픔이 된다. 그러나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소유를 잘 보살피고 최선을 다하는 청지기로 본다면 잃어버렸다는 것은 단지 우리 자신이 관리하던 것을 다른 이에게로 넘겨주는 하나님의 선택으로서 내 삶의 목적이 되지 못한다.

소유권의 올바른 행사

무엇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가진 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

아브라함이나 욥, 솔로몬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커다란 부를 가졌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물질이 영적인 삶과 정반대의 것도 아니고 불합리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다. 실로 예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심으로써 물질공급에 대한 관심을 영적인 차원으로 끌어 들이셨다. 이렇게 우리의 물질은 영적인 삶과 긴밀하고 긍정적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본다.

어떻게 돈을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의 향상을 위해 사용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아야 한다.

FLOWING

물질이 흐른다? 그렇다. 물이 흐르듯 물질도 흐르는 것이 삶의 원리이다. 이 흐름을 막는 데부터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사도행전에서는 FLOWING의 정신을 확실하게 실천하며 산 초대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행 2:45)에서 보듯이 자기에게 필요한 것 이상의 소유에 대해 flowing하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나타나 있다. 필요 이상을 가진 자들이 자신의 것을 내어 놓는다면 이 세상의 빈부의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다. 자본주의, 공산주의도 가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당신의 사람들을 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길 원하신다. 이 세상에 빛이 넘치길 원하신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의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의 포도원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레위기 19:9,10)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 주시리라.” (잠언 19:17)

실천합시다.

- 내가 쓰지 않고 단지 가지고 있는 물건은 무엇인가?
- 나는 같은 물건을 두 개 이상 가지고 있는가?
- 내가 알고 있는 지체 중에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이 꼭 필요한 사람이 있는가?

☞ 다음주 GBS 시간에 서로 나누어 쓰도록 합시다!

물질관리요령

물질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물질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지 않아도 재산을 가지고 부를 축적해 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그 분의 사람들에게는 이런 것들은 허락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당신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물에 관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시길 원하신다. 만일 우리 자신의 욕구만을 위해 돈을 쓰고 치부해 간다면 언제인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물질을 더 잘 관리하는 청지기에게 넘겨주실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 분의 뜻에 합당하게 재물에 대한 신탁권(trusteeship)을 가지고 관리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성취하시기 위해 물질을 풍족히 부어주실 것이다.

물질관리 우선순위

1. 하나님의 사업에 대한 우선순위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전 10:31)는 말씀처럼 우리 크리스천의 목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면 그분의 사역을 재정적으로 돕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한다.

-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
- 십일조를 드린다.

2. 생계, 가족을 돌보는 우선순위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 4:19)

- 나와 나의 가족의 필요를 위해 재정을 쓴다.

3. 정부에 대한 우선순위

“너희가 공세를 바치는 것도 이를 인함이라.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롬 13:6-7)”

- 납세의 의무

4. 당신의 빛에 대한 우선순위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시 3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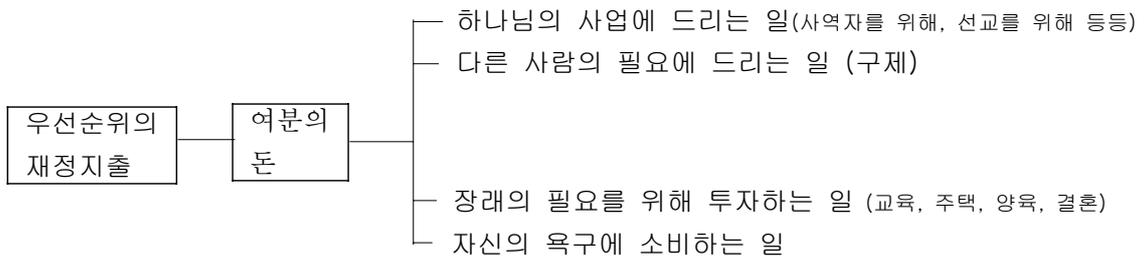
“네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고 네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갓다가 다시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잠 3:27-28)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롬 3:8)

- 빛은 지지 말고 꾸어 주는 자가 되라.
- 빛이 있다면 빠른 시일 내에 갚아라.

남은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

우리가 재정을 사용하는 데 4가지 우선순위를 살펴보았다. 우리에게 주어진 돈으로 우선순위를 먼저 고려하여 사용한 뒤 남은 돈이 있다면 그 여분의 돈이 있다면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결정해야 한다.



건강한 소비생활을 위한 지침

1. 필요와 욕구를 구별하라.
2.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의 물질을 드리기에 위한 비전을 세워라.
3. 소유로 자신을 내보이려하지 말고 인격으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라.
4. 유행을 따르기 보다는 자신의 스타일을 가지라.
5. 주어진 경제 수준에 만족할 줄 아는 성품을 기르라.
6. 가지려고 하기 보다는 누리려고 노력하라.
7. 좋은 물건을 사기 위해 시간을 가져라.
8. 재활용을 하라.
9. 보증 서지 마라.
10. 신용카드 사용을 절제하라.
11. 외상을 하지 마라.
12. 일시적으로 사용할 물건은 빌려 쓰라.

영화 속의 진리를 찾아서

돈과 탐욕의 미학

「히트」와 「제리 맥과이어」를 보고

인생은 연극과 영화와 같다. 누군가는 그렇게 말했고, 많은 사람들은 그 말에 동의한다. 누군가의 각본에 의해 주어진 배역을 따라 행동한다. 그 속에는 슬픔과 기쁨이 있고, 애증과 후회가 있다. 뒤엎힌 연극이 끝날 때면 그 모든 얽힌 일들이 일장춘몽처럼 무의미해지고 사라지듯이 마치 인생이 그런 것이 아닌지 사람들은 느끼는 것이다. 살아 있을 때면 야망과 욕심에 몸부림치며 살던 것이 인생의 황혼에 들어서면 정작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는 것, 그것은 연극이요 영화와 같다.

자기의 인생을 돌이켜 볼 때 가장 후회하게 되고, 허무하게 여기는 것 그것은 아마도 ‘욕심’이 아닐까.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자 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욕심, 그 욕심으로 인해 남을 짓밟기도 하고 속이기도 하고, 급기야 파멸시키며 죽이기도 한다. 사람을 사람으로서 보지 못하게 하고, 순수한 사랑을 오염시키는 것, 그것은 욕심이다.

알파치노와 로버트 드니로가 열연했던 영화 HEAT에 보면 큰 것 한탕하여 인생을 바꾸어 보고픈 닐(로버트 드니로)이 등장한다. 닐은 동료와 함께 특급 우편 발송 차량과 은행 등을 털며 1초의 주저함 없이 사람을 죽인다. 그리고 돈을 모은다. 그러나 그의 아파트는 가구 한 점 없다. 공허하다. 그래서인지 사랑하는 사람도 없다. 사랑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그의 본능은 그녀를 배신하고 떠나게 했고, 결국 공항 귀퉁이에서 총을 맞고 외로이 쓰러지고 만다.

반면에 냉혈한 닐과는 달리 일에 미쳐 사는 LA경찰 강력계 반장인 빈센트 한나(알파치노)가 등장한다. 일에 있어서는 굶주린 짐승처럼 집요하게 쫓아가지만 그 결과로 두 번의 이혼과 세 번째 결혼마저도 위기를 맞아 헤어지고 만다. 부인의 집을 떠나는 한나의 짐은 오직 텔레비전 뿐이다. 닐과 한나는 정반대의 세계에서 살아가지만 욕심과 야망에 의해 그들의 인

생이 외롭고 공허하다는 이유로 동질감을 느끼게 된다. 쫓고 빠져나가는 과정 속에서 한나는 눈을 쓰고 말지만 두 사람의 눈망울은 어느덧 애증과 회한으로 물들어 있다. 죽음 앞에서...

연극과 인생은 다를 수도 있다. 연극은 구성된 스토리의 극이 끝나야 자유로울 수 있지만, 인생은 삶의 과정 속에서 진실을 찾을 수 있고 사람들과의 참된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도 있는 것이다. 카메론 크로우 감독, 톰 크루즈 주연의 영화 '제리 맥과이어'가 있다. 유능한 스포츠 에이전트로서 장래가 촉망받는 맥과이어는 어느날부터인가 고객들을 돈으로 유혹하며 흑사시키는 직업에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다.

그러던 어느날 "회사는 방대한 고객 보다는 소수 정예의 고객들에게 진실한 관심을 기울여야 하며, 정작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제안서를 회사에 제출해 보지만 그 이유로 오히려 해고를 당하고 만다. 해고를 당한 맥과이어에게 남은 것은 약하고 수다쟁이인 흑인 풋볼 선수와 의리에서 사랑으로 맺어진 여직원, 그리고 상대를 사랑하지 않고는 성공이 있을 수 없다는 신념뿐이다. 결국 그의 신념은 현실로 이루어 졌고, 사람 사이에는 직업적 이기주의 외에 진실하고, 깨끗하고, 그리고 가슴 뭉클한 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인생은 연극이다. 그러나 아닐 수도 있다. 연극이 끝나기 전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면 우리는 진실한 삶을 영유할 수도 있다. 헛된 망상과 이념으로부터 우리를 깨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이런 얘기가 있다. 어머니가 아이에게서 젖을 떼고자 할 때 자기 가슴에 쓴 것을 바른다. 그러면 아이는 그 쓴맛으로 인해 젖을 찾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마 우리에게도 그러한 쓴맛이 필요한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고, 다가올 심판이 존재한다는 쓴맛이...

이 사람의 신앙과 삶 (1)

십일조와 맨소래담

매우 어려운 상황 중에 이 우선 순위를 철저히 지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인정받고 큰 복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맨소래담으로 유명한 하이드(A.A. Hyde) 씨입니다. 그는 사업을 하던 중 1880년대의 경제 공황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고생을 하며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반드시 십일조를 먼저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렇게 철저히 십일조 생활을 하는 그에게 사람들은 빚도 안 갚고 십일조를 하느냐고 힐문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빚을 먼저 갚아야 여러분에게 진 빚도 갚을 수 있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 후에도 경제 불황은 계속되었지만 그는 끊임없이 십일조 생활을 했습니다.

드디어 1890년대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심으로 그의 사업은 날로 번창했으며 그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십분의 팔까지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프리카에 선교사로 나가있던 아들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선교 사역을 위해 수입의 십분의 일을 선교비로 보내 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하이드 씨는 기쁨으로 또 십분의 일을 하나님의 사업에 바쳐 결국 소득의 십분의 구를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의 회사는 폭발적으로 부흥하여 이때로부터 맨소래담은 세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하이드 씨는 오늘부터 우리들의 십일조 생활에 이 경고와 사랑의 권면을 받아들여 하나님의 것을 가장 먼저 구별

하여 드리는 마음자세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헌신의 마음 자세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대하는 믿음의 자세를 갖게 합니다.

- 목사님, 십일조는 어떻게 드려야 할까요? (조용기 목사) -

이 사람의 신앙과 삶 (2)

천국에의 투자

요한 웨슬레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다. 우리는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 기도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을 바친 사람으로 생각한다. 그는 매일 아침 자리에서 일어나면 헬라어 성경을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다. 우리는 그가 수입이 얼마 안 되는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요한 웨슬레는 지극히 부유했다. 그는 자기가 쓴 찬송가와 자기가 집필한 책들로 해서 큰 수입을 얻었다. 한때 그는 4만 파운드를 기부한 적도 있다. 그는 당대의 재산가였다. 그런데 세상을 떠날 즈음 그의 재산은 28파운드 값어치 밖에 되지 않았다. 그는 이 땅에 보물을 쌓아 두지 않았던 것이다. 돈이 들어오면 곧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 다시 나갔다. - 그는 하나님의 나라에 투자한 것이다. 어떤 사람은 미구에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방지한다는 허울 좋은 구실로 돈을 쌓아 놓는다. 그런 사람들의 문제는 믿음으로 살지 않는다는 것 - 하나님께서 장차도 돌보아 주실 것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자기에의 투자

남가주 대학의 어떤 교수가 부동산에 투자하기 위해 1,000달러를 모았다. 그것은 훌륭한 투자였다. 그래서 그는 또 다른 것에, 그리고 또 다른 것에 거듭 투자했다. 마침내 그는 학생을 가르치는 일까지 그만 두게 되었는데 그것은 그가 억만장자가 되었기 때문이었다. 최근 그는 6천 8백만 달러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했다. 현재는 그는 더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부자이지만 그의 모습은 실제보다 15년은 더 나이 들어 보인다. 게다가 치부를 하는 과정 중에 그는 가족까지 잃었다. 그는 자기 주위에 수백만 달러를 쌓아 놓았다. 무엇을 위해서인가? 지금 나는 얼마 안 되는 예산으로 이것저것 다 하려고 애를 써야 하는 하나님의 사업에 관해 생각해 본다. 우리는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전부를 주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소유만 하고 있는가?

이 사람의 신앙과 삶 (3)

훌륭한 과학자, 훌륭한 그리스도인

여성으로서 노벨 물리학상과 노벨 화학상을 받은 퀴리 부인은 젊은 시절 뼈저린 가난 속에서 자라야만 했다. 그녀가 결혼을 할 당시에도 가난뱅이 출신이라는 이유로 남편 쪽의 부모로부터 굴욕적인 수모를 겪어야 했다.

남편의 보살핌 속에 그녀는 파리에 유학하여 오로지 학문에 몰두하였다. 겨울에는 온기가

없는 방에서 굶주림을 견뎌야 했던 것이다.

그로부터 10년 만에 가난뱅이 순진한 여성이 세계를 깜작 놀라게 했다. 당시 학계에서는 불가능으로 여겼던 ‘라듐’이라는 원소를 발견해 뉘트로써 인류에게 혁신적인 공헌을 한 것이다.

수많은 암 환자들이 새롭게 생명을 건지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퀴리 부인은 백만장자가 될 수 있었으나 그는 돈벌이에는 관심이 없었다. 한 푼의 돈도 받지 않으면서 “그것은 질병을 위해 쓰여지는 것인데 환자의 처지를 이용하여 돈을 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다.

그녀는 과학자답게 그리고 훌륭한 그리스도인답게, 억만의 부와 세상의 영화보다도 인류 봉사의 정신을 생활의 신념으로 삼고, 한 평생을 신앙으로 인류에게 삶의 본질을 보여 주었다.

아굴의 기도
(잠언 30장 7-9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내게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생각을 위한 시

돈 - 이동진

돈을 탐내지 않은 시대가 언제 있었던가.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는가.

그러나 돈은 형체도 없는 추억. 각자 잠시 되씹어 보는 한 순간 소유의 기억일 뿐.

천만원이 세 사람 손을 차례로 거쳐 가면
각자 나름대로 만족감을 맛보고 각자 그 추억만 간직한다.
돈은 통장에 찍힌 흘러간 숫자에 불과하다.

돈 때문에 살인하지 않은 시대는 없다. 돈 때문에 배신한 사람은 너무나 많다.

그러나 누구나 그토록 탐내는 돈은 우리 자신의 욕망의 상징일 뿐.
돈은 욕망을 알아주지 않고 또 채워주려고도 하지 않는다.

무한한 욕망이 제 멧에 겨워 세상을 불안하고 위험하게 만든다.
사람이 있는 한 늘 그 타령이다.